

## 제2과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깨끗한 그릇’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길 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 바로 ‘능력’입니다. 소위 스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즉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 )

성경은 사람들을 토기장이가 빚어 만든 ‘그릇’에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허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도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서 9:21-24)

---

---

---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45:9)

---

---

---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신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_\_\_\_\_)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어질 때 (\_\_\_\_\_)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_\_\_\_\_)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 2. (\_\_\_\_\_)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릇이 있습니다. 즉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그릇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15)

---

→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이 멀어 다메섹으로 부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바울의 악명을 익히 들은 아나니아가 주저하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택된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연약하기 그지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선택하실까요?

### 3. 선택의 조건-( )

세상에 파다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선택하는 조건은 ‘탁월한 능력’ 이나 ‘가문’ 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세상의 조건과는 다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20-21)

---

→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여러분이라면 어떤 그릇을 선택하겠습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값나가는 금 그릇’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그릇의 재질이 아닌 ‘깨끗한 그릇’ 즉 거룩과 성결이 선택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능력의 원천은 ‘그릇의 재질’이 아닌 ‘( )’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릇의 재질이나 가치가 아닌 깨끗함을 선택의 조건으로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은 질그릇의 능력이 아닌 그릇에 담긴 보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 곧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그 그릇에 담긴 ‘그 무엇’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

→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능력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능력은 ‘그릇’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겨진 보배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그릇의 재질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릇의 재질은 ‘사람이 보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거룩함 즉 성결과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려 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질그릇에 금도금’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 2) 그릇의 기능은 (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선택의 조건으로 여기시는 이유는 ‘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그릇은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거룩한 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16-17)

---

→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 그 성령을 담아야 하는 그릇인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 4. ( )

그릇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 1) 거룩은 ( )입니다.

성도의 능력인 거룩은 하나님께서 성민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44-45)**

---

→ 성도의 거룩은 ‘선택’이 아닌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싶으면 그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된 이상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구약의 명령만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 동일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14-16)**

---

물론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 )’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1:8)**

---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 )’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5)

---

---

2) 기록은 ( )입니다.

성도의 기록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록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기록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3a)

---

---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7)

---

---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곧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 (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을 위해 부름 받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3-16)

---

---

→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고 같이 어두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부패했다고 같이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 빛이 그 빛을 잃어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즉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은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소용 가치가 없어진 ‘버려야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과 소금의 거룩한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착하다’고 하면, 어른들 말 잘 듣는 아이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순응하는 행동을 ‘착한 행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인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에 반항하고, 세속적 흐름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삶,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의 빛 됨과 소금 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 □ 목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